

배티그가 만든 샤도네이… 칠레 트라이겐의 발견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0

이제 칠레 와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가성비 좋은 칠레 와인, 믿고 마신다는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 혹은 세나나 돈멜초처럼 칠레 프리미엄 와인. 오정도 반응을 넘어서야 할 단 예기다. 우리가 부르고뉴 와인이라면 “오, 주브레 상베르타이네?” 혹은 화이트 와인이라면 “역시 샤블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이, 특정 포도밭이 그 와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칠레 3.0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칠레 1.0 버전, 프랑스 최고 와인과의 겨를 만한 프리미엄 와인의 탄생이 칠레 2.0 버전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칠레 트라이겐의 테루아를 전면에 들고 나온 부티크 와이너리, 배티그(Baettig)다.

칠레 배티그의 공동설립자인 카를로스 데 카를로스스는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천히 익은 포도는 껍질 자체가 얇고 당도나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트라이겐만의 신선한 생동감과 미네랄을 가지게 된



(왼쪽부터)배티그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샤르도네, 배티그 비노 비네도 피노누아, 배티그 비노 비네도 카베르네 소비뇽,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카베르네 소비뇽. /이영FBC



칠레 배티그 공동 설립자 카를로스 데 카를로스

다”며 “부르고뉴스러운 칠레 와인이 아니라 누구나 트라이겐 샤도네이, 트라이겐 피노누아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배티그는 전 에라주리즈 수석 와인메이커인 프란치스코 배티그와 전 에라주리즈 커머셜 디렉터인 카를로스스가 손을 잡고 세운 와이너리다. 그들만의 와이너리를 만들자며 2010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2013년 칠레 최남단 말레코 밸리에서 트라이겐 지역을 발견하며 본격화했다.

와인 애호가라면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일단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터. 프란

치스코로 말할 것 같으면 칠레 와인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으로부터 100점을 받은 ‘비네도 차드 워 2014’를 만든 와인 메이커다.

무게감 있는 묵직한 와인을 만들던 그가 선택한 품종은 다름 아닌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다. 칠레 와인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이전과는 좀 다른 와인을 만들고자 했다.

카를로스스는 “트라이겐은 기본적으로 화산토양이지만 배티그 포도밭은 가장 위로 점토부터 아래로 내려갈 수록 자갈과 암석까지 다층적”이라며 “모든 와인은 손으로 수확하고,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야생 효모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와인 포트폴리오는 부르고뉴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을 단위 와인인 빌라주, 1급 밭에서 만든 프리미에 크뤼, 특급밭인 그랑 크뤼가 있는 것처럼 배티그는 어떤 품종이든 빌라주에 해당하는 ‘비노 비네도’, 프리미에 크뤼인 ‘셀렉시옹 파셀라’로 나뉜다.

배티그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 2023’은 보통 칠레 샤도네이와 같은 열대과일향이 아니라 감귤류다. 테루아의 영향도 있지만 와인 메이커도 오크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했다. 꽃향도 어우러지는 가운데 과일 풍미에 생동감 있는 산도가 길게 이어진다.

배티그 셀렉시옹 파셀라 샤르도네

2023’은 비노 비네도 샤르도네의 맛에 서늘한 바람과 돌이 한결씩 얹혀졌다고 상상하면 된다. 농축미가 좋아 초반엔 향도 맛도 소극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집중한 산도에 미네랄감, 복합미가 진가를 보여준다. 작년에는 칠레 와인 톱 100 가운데 6위에 오르기도 했다.

트라이겐 테루아에서 샤도네이가 처음부터 실력을 발휘했던 우등생이라면 피노누아는 대기만성형이다. 카를로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트라이겐에서 “트라이 에게인(Try Again·반복적으로 다시 도전)”했다.

‘배티그 비노 비네도 피노누아’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클론을 트라이겐에 심어 만들었다. 2023 빈티지는 따뜻했던 해답게 잘익은 붉은 과실향과 섬세한 꽃향, 낙엽 뉘앙스까지 잘 표현됐다.

와인병 라벨의 문법도 부르고뉴를 따랐다. 보통 칠레 와인이 와이너리나 브랜드명을 크게 내세운 것과 달리 트라이겐이라는 세부 지역명을 가장 잘 보이게 했다.

사실 배티그의 지금보다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다. 몇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와인 업계 관점에서 보면 아직 유년기를 막 지난데다 드디어 고르고 고른 싱글 빈야드 와인, 부르고뉴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랑 크뤼급 와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GV “관객이 원하는 영화 상영합니다”

온디맨드 프로그램 ‘COD-7’ 선택 관객 투표·예매수요 기반 영화 선정

관객이 직접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실제 예매 수요에 따라 상영 여부가 결정되는 새로운 극장 프로그램이 나온다.

CGV는 관객 투표와 예매 수요를 기반으로 상영작을 선정하는 고객 참여형 온디맨드(On Demand) 프로그램 ‘COD-7(씨오디 세븐)’을 이달부터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COD-7’은 매월 특정 테마에 맞춰 7편의 후보작을 공개한 뒤 관객 투표로 상영작 1편을 선정하고, 이후 예매 수요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극장 상영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관객의 선택뿐 아니라 실제 관람 의향까지 반영해 극장 상영작을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 프로그램의 테마는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봉한 작품 가운데 관객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후보를 구성했다.

9월 후보작에는 ‘시라트’, ‘센티멘탈 밸류’, ‘햄릿’, ‘삼자 속의 양’, ‘마티 슈프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CGV ‘COD-7(씨오디 세븐)’ 론칭 /CGV

전으로 돌…’ 등 7편이 이름을 올렸다.

관객 투표는 오는 7일까지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최다 득표작은 7일 오후 공개되며, 이후 해당 작품의 ‘COD-7’ 예매가 시작된다.

상영 후보 극장은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비롯해 영등포타임스퀘어, 왕십리, 인천, 오리, 광주상무, 대전, 대구, 서면, 울산삼산 등 전국 10개 극장이다. 오는 15일 오후 7시 회차를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하며, 각 극장의 목표 관객 수를 달성하면 해당 회차의 상영이 최종 확정된다.

CGV는 ‘COD-7’을 통해 관객의 선택과 수요를 극장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가박스, 흥행작 ‘돌비 사운드’로 본다

오디세이·어벤져스:엔드게임 재상영

메가박스가 9월 돌비 시네마 라인업으로 대형 흥행작을 다시 선보인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와 마블 대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를 돌비의 영상·음향 기술로 만나볼 수 있다.

‘오디세이’는 9월에도 돌비 시네마에서 연장 상영된다. 지난 8월 5일 개봉한 이 작품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전쟁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에 걸쳐 겪는 여정을 그린 대서사극이다. 신화 속 미지의 세계를 배경

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과 대규모 액션 장면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23일부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가 재개봉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 타노스와 맞서는 어벤져스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작품으로, ‘인피니티 사가’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이다. 이번 재개봉에서는 히어로들이 총집결하는 주요 장면을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두 작품은 돌비의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한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된다. 돌비 비전은 화면의 색감과 명암, 디



오디세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포스터. /메가박스

테일을 표현하고 돌비 애트모스는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공간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메가박스는 국내 8개 돌비 시네마와 6개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쇼박스, 숏폼 시장 도전… 올해 20편 선보

숏폼 전문 레이블 ‘쇼바이트’ 신설 로맨스·액션·사극 등 다양한 장르

쇼박스가 숏폼 드라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쇼박스는 숏폼 드라마 전문 레이블 ‘쇼바이트(SHOWBITE)’를 새롭게 선보이고, 오는 9월부터 작품 5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약 20편의 숏폼 드라마를 선보이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쇼바이트의 첫 작품은 오는 9월 11일

공개되는 ‘Taste of You’(감독 윤형식)다. 글로벌 숏폼 드라마 플랫폼 ‘쇼타임(Shorttime)’과 ‘비글루(Vigloo)’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난다.

‘Taste of You’는 세계적인 식품 그룹의 차남 ‘빅터’와 절대미각을 지닌 라이벌 ‘마이크’가 요리 경연에서 한 팀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경쟁자로 만나 치열하게 부딪히던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 빠져드는 과정을 그린다.

액션과 스릴러를 결합한 작품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사신: 아수라의 귀환’은 여동생의 실종을 계기로 거대한 세력에 맞서게 된 전직 비밀 요원 ‘아수라’의 복수를 그린다.

사극 장르에서는 ‘조선슬화집’(감독 박진영)이 공개된다. 조선 시대 상류층의 은밀한 모임을 배경으로 권력과 배신, 치명적인 유혹을 풀어낸 작품으로, 이태성·류효영·고윤·정주연 등이 출연한다.

쇼박스는 쇼바이트를 통해 로맨스와 액션, 스릴러, 사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숏폼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신원선 기자



▲WSJ “美, 이란전 파병 내년까지 연장…지상군 투입 재검토”

▲美 호위로 유조선 40척 호르무즈 통과…이란전 후 최대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요원들, 도심서 총격전… 2명 중상

▲NHK “日 다카이치 총리 이르면 이달 16일 개각…관방·자민 간사장 등 유임”

▲네팔, 발전소 터널속 ‘생존 가능성 수십명’ 구조 집중

▲대만 노동장관, 내달 中난징 APEC 회의 참석 ‘이례적’